

정의의 종

SNU LAW MAGAZINE
VOL. 33



목 영 준 · 재단법인 나은 이사장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 · 법대 74학번

1	2021학년도 전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축하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3	로펌의 사회적 공헌은 당연한 것입니다. 목영준 · 재단법인 나은 이사장 · 법대 74학번
4	서울법대 사람들 이재민, 최계영 교수
6	서울법대 사람들 SNU Vis Moot Skubi 팀 · 방태훈, 박정현, 양동준, 이수민 학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진팀 · 이태희 학생 가인 법정변론 대회 우승팀 · 민사 안유진, 권용석, 박예원 준우승팀 · 형사 엄주민, 이내경, 전해원 학생 학생홍보대사 12기 · 김동희, 이나은, 장재혁, 허태인 학생
10	법학전문대학원 소식
11	연구소·센터 소식
14	신간 소개 릴레이 도서 추천
15	SNU Law 人 캠페인 안내 Next Decade 기금(발전기금) 안내
16	법학발전재단 및 발전기금 출연현황 2020. 9. 1 — 2021. 2. 28
C4	예우 안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코로나19로 신입생 여러분을 직접 만나 축하 인사를 전하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좋아져 여러분을 직접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이미 작년 1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지난 1, 2월 두 차례 신입생 캠프 등 여러 차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이 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을 맞이하는 기회에 신입생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서울법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학교육기관이자 연구기관입니다. 서울법대는 우리 사회의 리더들을 길러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랑스러운 전통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었고, 서울법대가 무엇을 지향하는 어떤 교육기관인지, 서울법대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왜 그 일원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생각해 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약속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자유롭게 편견이 없으면서도 책임감 있고 품위 있는 지성인으로 여러분 자신을 갈고 다듬어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긴 호흡으로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기 바랍니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실무가를 양성하는 곳이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실무가가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단지 판례와 법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법을 만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다른 학생보다 몇 점 더 받아 학점을 한 등급 올리는 것보다, 변호사시험에서 몇 점 더 받는 것보다, 깊고 넓게 공부하여 법학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초야말로 지금 이곳이 아니면 배우고 익히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삶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법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라는 이야기가 공부를 게을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학적 사고를 체득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해야 할 양도 대단히 많습니다. 3년 만에 법학적 사고의 기초부터 복잡한 응용분야 및 어느 정도의 실무역량까지 익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과정을 견딜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가 많습지만, 그럴수록 교우관계에 신경을 쓰고,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끝으로, 동기와 선·후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동기와 선·후배는 지금은 종종 치기마져 느껴지는 학생일지 모르지만, 십몇 년만 지나면 각자 자기 자리에서 빛나는 별이 되어 있을 사람들입니다. 미래의 별들을 한 곳에서 만나 함께 성장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 학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정을 말하는 겁니다. 가는 길은 서로 달라도 내가 가는 길을 알아보고 지켜보며 응원해줄 좋은 친구, 좋은 선·후배만큼 인생에 큰 자산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은 명실상부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기초연구에서부터 국가·사회의 현안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최상의 멘토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시설과 장학금혜택이 있고, 공익활동에 참여할 기회도 있으며, 여러분의 학업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울 점이 있는 훌륭한 친구들이 있고, 여러분이 이어갈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길에 동참하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영준 · 재단법인 나은 이사장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 · 법대 74 학번



로펌의 사회적 공헌은 당연한 것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는 2018년 재단법인 나은을 설립한 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 국내외 여러 연구·교육기관의 학술·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해왔다. 재단법인 나은의 목영준 이사장(서울법대, 74학번)은 로펌의 공익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법률가는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은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를 신설하고, 산하에 법률자문, 법률 제·개정 지원, 법률교육, 공익소송 등을 수행하는 공익법률센터와, 법률 외적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사회봉사센터를 두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나은을 통하여 국내외 법률 학술·연구 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영준 이사장은 그 스스로도 공익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다. 서울법대 재학 중인 197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30여 년간 판사와 헌법재판관을 역임하고, 2013년부터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온 경력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에게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공직생활의 선택 계기와 의미에 대해 물었다.

“처음에는 경제 범죄 전문검사가 되고자 형사법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회계학도 공부했었지만, 군 법무관을 하면서 제 적성이 검찰에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로펌 변호사로의 진로도 고민하였지만, 결국 중립적 판단자가 되고 싶어 법관을 택하였습니다.

판사 생활도 좋았지만, 헌법재판관이 되어 사회적 현안에 대해 저의 가치관을 진솔하게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제 일생에 가장 큰 행운이었

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끊임없이 충돌하는 헌법상 가치들을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사회공공질서’보다 중시하다 보니 사형제, 낙태죄, 간통죄, 병역법 등의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많이 내었습니다.”

목영준 이사장은 공직에 봉사하면서도 학업활동을 병행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닦았다. 중재법을 전공으로 Harvard Law School LL.M. 및 Köln 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이후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재판관을 역임하는 등 중재법 분야의 최고권위자로 거듭났다.

“법관으로서 자신만의 논리에 빠지거나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 꾸준히 새로운 지식을 충전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어 학술 활동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중재법을 전공하게 된 것은, 故 최기원 교수님의 연구조교를 한 것을 시작으로 그 후 법관으로 근무하며 재판에 의한 분쟁 해결보다는 중재와 같은 우호적인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목영준 이사장은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일반적 법률 지식, 전문적 법률 지식, 확실한 어학 능력 세 가지를 꼽으면서, 후배들에게 다음과 같은 격려를 잊지 않았다.

“최근 법조인의 수가 급증하다 보니 젊은 법조인들이 예전보다 훨씬 힘들고 답답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Challenge and Response’라는 말을 믿습니다. 즉,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후배들이 긍정의 마음으로 자기 발전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저희보다 월등하게 우수하고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11기) 이소연, 2학년(12기) 신서연 학생기자

올바른 법의 지배



이재민 교수

2020년 11월,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연구부문)’ 수상자 10명 중 한 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민 교수가 선정되었다. 서울대학교는 매년 연구, 교육 두 부문에서 교수진의 업적을 평가하여 학술연구교육상을 시상해왔다. 다음은 이재민 교수와의 인터뷰를 담았다.

먼저 수상소감을 묻자, 이재민 교수는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뛰어난 교수님들이 많으심에도 제가 이 상을 받게 되어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학교에 기여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새기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재민 교수는 2020년 12월 9일 수상을 기념하는 강연에서 ‘혼돈의 시대, 국제규범 전쟁(lawfare)’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부탁하였다.

“국제규범 전쟁은 제가 최근 관심을 두고 살펴보는 주제이고 외국의 여러 연구자도 부지런히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무역, 보건, 환경, 노동 등 국제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국가들의 갈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이 자국의 전략적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적 논리를 동원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적으로만 보면 국제법 활용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자국 이기주의, 패권주의, 민족주의 구현의 수단

으로 국제법이 사용되는 것이지요. 2차 대전 종전 후 지난 76년간 국제사회는 UN 체제 하에서 다자주의, 공동체주의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는데, 최근의 움직임은 그간의 성과와 흐름에 역행하는 추세로,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중 분쟁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이해·분석하여, 다자주의 회복을 위한 국제규범의 적용과 새로운 규범의 도입에 관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고, 그 관점에서 최근 미·중 갈등에서 발현되는 규범 전쟁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러한 연구는 보다 거시적, 장기적 고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가 목도하는 다자주의의 후퇴는 전 세계와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구조적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는 미시적 주제의 연구에만 집중한 면이 없지 않았는데, 이번 학술연구교육상이 거시적·장기적인 측면에서 더욱 의미 있는 연구를 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그러한 연구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민 교수는 “앞으로 제가 하는 연구가 국제사회의 공동체주의를 회복하고 올바른 의미의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자리잡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하였다.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11기) 이소연 학생기자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시대적 사명



최 계 영 교 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계영 교수가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소감을 겸하여, 문답식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_____ 법학과 교수로서 수상하신 감회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법학 교육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교수법 개발과 충실한 수업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은사, 선배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받게 되어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초심자에게는 특정한 쟁점이 문제가 되는 맥락과 이유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아무래도 본격적인 사회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맥락을 지워버린 채 다소 관념적으로 개념과 법리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고 각각을 뒷받침하는 여러 논거가 있을 때, 논거의 타당성과 중요도를 가늠하여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Q. _____ 앞으로의 법학 교육에서 어떤 점을 더욱 보완, 발전해나가고 싶으십니까? 혹은 아쉬운 점으로 남으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법학 글쓰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하는 의사소통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법학자나 법률가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글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토론과 피드백을 통해 글을 완성해가는 형태의 수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목 특성상 대형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업의 규모가 크면 실질적인 피드백이 쉽지 않아 항상 아쉬움이 큼니다.

Q. _____ '정의의 종'은 기부자님들과 학생들도 많이 접하게 되는 매체입니다. 기부자님들께, 그리고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각각 부탁드립니다.

본교는 우수한 법률가와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부자님들의 기부 덕분에 교육에 보다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충실한 교육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본교가 새로운 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법학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계속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학업 부담이 큰 전공이어서 학생들을 보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마나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법학 공부 속에서 소소한 재미들을 찾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최계영 교수는 이민법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률가 양성을 위해 국내외 상황을 반영한 이민법 및 난민법 관련 교과목을 신설하였다. 또한 대형강의인 행정법 실무연습에서는 행정법 분야의 핵심을 강의하여 학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지도하며 매년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바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동아리 <법학평론> 지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11기) 김동훈 학생기자

함께 가는 SNU LAW



빛나는 팀워크의 결실

2020년 8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후원하는 ‘제11회 세계무역기구(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총 13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저평가된 통화가치가 WTO 협정상 금지보조금인지 여부 등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하였으며, 서면 제출 및 구두심리로 진행되었다. 서울대 법전원 SNU Vis Moot Skubi팀(방태훈·박정현·양동준·이수민)은 최우수상과 최고서면상을, 동 팀 박정현 학생은 최우수구두변론상을 수상하였다. 다음은 우승팀과의 1문 1답이다.

Q. 대회 준비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이수민 조장인 방태훈으로부터 서면 작성에서의 톤 조절 방법, 즉 상대방을 과하게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입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주장하는 법을 많이 배웠다.

방태훈 팀원 각자가 특화된 능력을 통해 팀에 공헌한 점이 기억에 남는다. 정현은 같은 내용도 매우 설득력 있게 말했고, 수민은 우리의 주장이 왜 옳은지 간결·정확하게 설명하고 결론내렸으며, 동준은 불명확한 부분을 짚어내어 체계적인 논리 구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Q. 대회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박정현 특히 법학 용어의 번역이 힘들었다. 또 여러 사람이 함께 쓰다



SNU Vis Moot Skubi 팀

보니 글의 흐름을 일관되게 가져가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어려웠다.

방태훈 6페이지로 주어진 한정적인 사실관계만으로 주장을 끌어내리고 하니 법리 공부와 리서치를 많이 해야 해서 부담이 컸다.

Q.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점은?

박정현 수업이 비대면이라 느낀 아쉬움을 대회를 준비하며 많이 채울 수 있었고, 맡은 역할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팀워크를 배울 수 있었다. 최우수구두변론상도 팀으로서 잘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Q. 다음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한다면?

양동준 사실관계가 적으므로 자신만의 논리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박정현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경우가 많아서 충분한 리서치도 필요하다.

방태훈 독자나 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메시지를 가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12기) 신서연 학생기자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발판 삼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2020년 8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는 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가 열렸다. 전국 14개 법학전문대학원 22개 팀 106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진팀(김범준·김정태·박예원·심규현·이예주·이태희)과 공심단팀(김세원·박소정·윤혜정·전예아)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행진팀의 팀장을 맡아 대회에 참가한 이태희 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대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달라.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제도를 이해하고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회이다. 주어진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에 대해 각 참가팀은 인용과 기각의 입장으로 나뉘어 토론을 벌이게 된다. 예선은 서면으로 진행되었고, COVID-19 사태로 인해 본선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Q. 어떤 계기로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는가?

행정심판이라는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컸다. 행정소송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알고 있었

는데, 실제 어떤 사건들이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해결되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보고 싶었다.

Q. 팀원들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준비하였는가?

COVID-19 사태로 인해 모든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많은 교내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학우들과 친해질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건설법연구회를 통해 대회에 함께 참가할 학우들을 만날 수 있었다. 대회를 준비한 4주간 매일 학교에 모여 팀원들과 치열하게 토의하고 서면을 작성하였다.

Q. 대회 참가를 통해 느낀 소감을 말해달라.

기계적으로 법조문을 적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어떻게 하면 국민의 권익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공법적 사고방식을 경험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또한 현실의 사건을 두고서 독자적인 논리를 짜고 상대 팀을 설득하는 과정이 무척 흥미로웠다. 1, 2학년 학우들이 함께 모여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과정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교우관계도 돈독해졌다.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12기) 양건호 학생기자

힘들어도 뿌듯했던 시간을 돌아보며



민사부문 우승팀

“같은 목표로 열심히 한
따뜻한 기억이 남아요”



형사부문 준우승 팀

2020년 12회를 맞이한 대법원 주최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서 서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민사부문에서는 12기 학생들로 구성된 팀(안유진·권용석·박예원)이 우승을, 형사부문에서는 11기 학생들로 구성된 팀(염주민·이내경·전혜원)이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실제 법관 앞에서 원·피고 대리인 또는 검사·변호인으로서 실제 재판과 동일하게 펼쳐지는 경연이다. 계속되는 고 민과 부단한 노력 속에서 값진 성과를 얻어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Q. _____ 대회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좋았던 점, 기타 느낀 점은 무엇인가?

이내경(형사) 힘들었으나, 친한 사람들끼리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 기도 했다.

염주민(형사) 수업에서 써야 하는 보고서 마감까지 겹치다 보니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좋았던 점은 수험용으로 공부할 때는 결과 위주로 암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대회를 준비하면서는 판례 간의 차이라든지, 하급심 판례에 대해서도 더 들여다보게 돼서 많은 공부가 됐다. 또 친구들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열심히 했다는 기억이 따뜻하게 남는다.

전혜원(형사) 대회 설명회를 들으면서 우승한 분들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런 성과를 얻어냈다는 사실이 기분 좋았다.

권용석(민사) 수험 법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판례가 절대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현실의 분쟁을 살피면서, 판례가 가능한 논리적 선택지 중 하나라는 명제가 와닿았다. 그 이후로는 똑같은 판례를 보더라도 대하는 느낌이 많이 달라졌고 오히려 판례 입장에 맥락을 부여하게 되면서 이해도가 높아졌다.

박예원(민사) 대회 준비 과정에서 박윤직 교수님의 민법 주해와 로앤비의 민법 주석서들을 참고했는데, 그런 자료들을 보고 저희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면서 공부가 많이 되었다.

Q. _____ 장차 대회를 준비하게 될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내경(형사) 반론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변론에서의 역할을 미리 정하는 게 좋다.

염주민(형사) 마지막 검수는 미리 꼼꼼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권용석(민사) 원고와 피고의 서면을 둘 다 작성해야 하므로, 어느 한 쪽이 완벽하게 옳고 틀린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짚어주는 것이 좋고, 지적당했을 때 겸허하게 수용하고 주장을 바꾸는 용기가 필요하다.

박예원(민사) 다양한 관점을 가진 팀원이 중요하다. 또 문장을 다듬는 데에 시간이 많이 드니 그 부분도 염두에 두면 좋겠다.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12기) 이린 학생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얼굴

학생홍보대사의 이야기를 듣다



김동희 · 이나은 · 장재혁 · 허태인 학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홍보대사들은 입시설명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공식 행사에서 학생들을 대표하여 입시 관련 경험부터 학생들의 생활까지,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COVID-19 사태로 인하여 대외 행사가 줄어 아쉽다면서도, 학교를 알리고 함께할 수 있어 정말 좋았다고 말하는 학생홍보대사 12기 김동희, 이나은, 장재혁, 허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학생홍보대사라는 역할이 낯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학생홍보대사에 대해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허태인 학생들 대상으로는 입시설명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학교를 주로 소개하는 편이고, 귀빈분들이 방문하시면 학교를 안내하는 역할을 해요.

이나은 COVID-19 사태 때문에, 지금까지의 공식적인 대외 활동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로스쿨 생활 1년간의 소화에 관해 이야기한 것, 딱 한 번이었어요. 학생회와 학생부원장님도 학교를 소개해 주셨지만, 저희는 학생 관점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학교생활이 어땠는지 이야기했었어요.

Q. 지금까지 홍보대사로서 한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허태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ZOOM을 통해서 학생 생활을 소개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신입생들이 진지하게 들어줄까 걱정했는데 다들 너무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장재혁 이동진 학생부원장님께서 저희가 학생홍보대사라고 소개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효용감이 들었어요.

Q.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달라졌다고 느끼는 점이 있나요?

허태인 저는 홍보대사가 되기 전에도 주변에서 입시에 관해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으면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요, 홍보대사가 되고 그 친구들이 실제로 지원을 하고 저에게 도움을 받아서 고맙다고 하는 연락이 오고 이런 걸 보면서 책임감이 많이 생겼어요.

김동희 홍보대사로 만난 친구들이 다양한 목표와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라 저도 자극을 받고,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앞으로 홍보대사 활동을 하시는 데 대한 다짐을 이야기해주세요.

허태인 하루하루의 학교생활에 매몰돼서 잊을 때가 있는데, 학교에 입학하면서 했던 다짐을 잊지 말자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나은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학교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개인으로서는, 나다움을 잃지 않고 남은 2년을 잘 마치고 싶어요.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12기) 이린 학생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감사패 전달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20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학교의 발전과 법학교육의 진보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정성호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공익법률센터 발족에 크게 기여하는 등 모교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감사패는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앞의 '정의의 종'을 본떠 만들어졌으며, 수여식에는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천경훈 교무부원장, 장승화 전(前)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함께하였다.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비대면 입학설명회 개최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가 2020년 9월 7일 비대면(ZOOM)으로 개최되었다. 2021학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는 동일한 내용을 1, 2 차수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각 차수에서 1) 학교에 대한 소개, 2) 2009~2020년 입학전형 결과 설명, 3)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 계획 안내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이번 설명회는 COVID-19 사태로 인해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선착순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차수별 250명, 총 500명으로 참가 인원을 제한하였다.

법무법인 L.K.B & Partners 이광범 대표변호사 감사패 전달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20년 10월 28일, 법무법인 L.K.B & Partners 이광범 대표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이광범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법관·변호사로 활동해왔으며, 서울법대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출연하여 모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감사패 전달식에는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천경훈 교무부원장, 이동진 학생부원장, 장승화 전(前)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참석하였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별관 제막식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별관 제막식이 2020년 11월 16일 개최되었다. 이번 제막식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기정 원장, 천경훈 교무부원장, 이동진 학생부원장, 김주영 공익법률센터장과 SBS 문화재단의 윤세영 회장, 홍성욱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2020년 9월 법학전문대학원 서암관(72동) 1층에 개관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별관은 SBS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임상법학 교수들의 연구와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위해 조성되었다. 윤세영 회장은 공익법률센터 별관 제막식 참석 후 공익법률센터 내부를 살펴본 뒤, 17동으로 이동하였다. 우리 대학의 한기정 원장은 윤세영 회장의 귀한 마음을 받들어 법학교육을 통한 사회 공헌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56학번인 윤세영 회장은 1987년 기부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서암관을 기부하는 등 모교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미국무부 국제형사사법 Morse Tan 대사 방문

미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담당인 Morse Tan 대사가 2020년 11월 16일 방문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서암관(72동) 506호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 자리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이근관 교수, 이재민 교수, 원유민 교수가 함께하였다. Morse Tan 대사는 한국계 북한 인권 전문가로 북일리노이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국제법 분야의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2020년 12월 21일 비대면(ZOOM)으로 진행되었다. 원장단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신입생 입학과 학교생활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이후 재학생들과 신입생들이 비대면 만남을 가지며 마무리 되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이 2021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1월 7일 휴식일) 실시되었다. 올해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재한 전국 25개 대학교에 고사장이 마련되었으며, 서울대학교에는 인문관이 고사장으로 지정되어 시험이 실시되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본교의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위하여 사전에 필기구, 핫팩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키트를 제공하였다. 변호사시험 1일차에는 공법(선택형·사례형·기록형), 2일차에는 형사법(선택형·사례형·기록형)이 실시되었고, 3일차에는 민사법(선택형·기록형)이, 4일차에는 민사법(사례형)과 선택과목(사례형)이 실시되었다. 이번 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4월 23일 예정돼 있다.

후배사랑 변호사시험 '걱정마Law'

제10회 변호사시험 도시락 지원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걱정마Law 모금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걱정마Law 캠페인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

업생들이 후배들에게 변호사시험 합격을 기원하며 선배의 이름과 개별 응원 메시지가 동봉된 도시락(4일간)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모금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161명이 참여하였고, 모금 목표액 7,000,000원을 넘는 8,225,000원이 모금되었다. 도시락 지원 후 남은 잔액은 위임 기금으로 적립되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캠프 진행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21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입학 전 신입생캠프를 I, II로 나눠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신입생캠프 I은 2021년 1월 20-21일 양일간 비대면(ZOOM)으로 이루어졌고, 학교에서 준비한 기초법학 과정 I특강(담당: 이계정 교수)과 동아리 공연음악회의 비대면 신입생 환영 공연, 서울법대역사특강 및 퀴즈(진행: 천경훈 교무부원장), 학생회 및 새내기배움터준비위원회가 준비한 조별 프로그램, 특강(연사: 법무법인 창천 채승훈 변호사, 주제: 로스쿨과 법조계에서의 인간관계), 수강신청 지도 및 지도교수와의 만남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입생캠프 II는 기초법학과과정 II(담당: 권영준 교수), 외부 연사 초청 특별 강연(연사1: 우창록 동창회장, 주제: Excellence를 향한 도전 - 후배들을 위한 선배의 제언; 연사2: 위구원 교수, 주제: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AI from a computer engineer's perspective), 학회 및 동아리 소개, 릴레이강연(담당: 이근관, 홍진영, 김종보, 정준혁 교수, 주제: 법학의 외연), 조 및 반별 활동 순으로 진행되었다.

2020학년도 전기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2021년 2월 26일, 2020학년도 전기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비대면(ZOOM)으로 진행되었으며, 행사는 개회사, 학사보고, 졸업식사, 축하, 일반대학원 졸업생 답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답사, 학위수여 및 시상, 졸업영상 감상, 폐회의 순서로 이어졌다.

한기정 원장은 “오늘은 여러분이 서울법대를 떠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오늘은 한 여정의 마무리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여정의 시작으로서 더 의미가 있

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 실무가로 나아가는 법학자의 길을 나서든 앞길에 큰 성취가 있기를, 그리고 여기서 배우고 익힌 것이 그 길을 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축사를 보내면서, 늘 배우고 발전하는 사람이 될 것, 친구와 동료들 소중히 여기고 함께 발전하는 사람이 될 것,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될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법대 우창록 동창회장 또한 목표를 세우고 살 것,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 것, 배우고 익힌 것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이 될 것, 열린 마음으로 동료들과 공감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하며,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에 나선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였다.

한편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법학박사 15명, 법학전문박사 2명, 법학석사 23명, 법학전문석사 168명을 포함하여 총 208명에 대한 학위 수여가 이뤄졌다.

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2021년 2월 26일, 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입학식이 비대면(ZOOM)으로 열렸다. 한기정 원장의 축사, 천경훈 교무부원장의 인사말, 교수진 및 교직원 소개, 법학전문대학원 동아리 ‘공연음악회’의 축하 공연으로 이루어진 이 날 자리는 많은 신입생이 접속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한기정 원장은 “법을 공부하는 만큼 장차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임을 스스로 기억하고, 주변 친구들을 경쟁자로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면 좋겠다.”며 학생들의 입학을 축하하였다.

비대면으로 열린 입학식이었으나, 입학을 맞은 신입생들의 설렘만은 ZOOM을 통해서도 전달되었다.

연구소·센터 소식

2020년 동계공익법무실습 실시

2020년 제2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계공익법무실습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동계공익법무실습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공익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 실력을 배양하고 공익적 역할을 되새기게끔 하는 동계 방학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2020년 12월 17일 사전교육(비대면 진행)을 시작으로 약 2개월간 155명의 학생이 30여 개의 공익활동 기관에서 뜻깊은 방학을 보내고 왔다.

국제아동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등 각지에서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수업에서 배운 법적 지식이 현장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활동에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변론 준비, 서면 분석, 의견서 작성 등 각 기관에서 필요했던 법률 업무를 적극적으로 조력했고, 그 과정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2021년 2월 25일 동계공익법무실습 공익활동 보고대회(비대면 진행)를 끝으로 마무리된 이번 실습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활동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소감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보고대회를 함께한 1학년 박가영 학생(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발달장애인의 인권보장 프로젝트 참여)은 “이번 동계공익법무실습이 제가 법률가로 성장하는 데에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선배와의 대화: 다양한 직역’ 특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지원센터(센터장: 최계영 교수)의 가이우스 프로그램에서는 2020년 하반기 총 세 차례에 걸쳐 ‘선배와의 대화’ 특강을 개최하여, 현업에 있는 졸업생들의 경험을 재학생들과 공유할 기회를 마련하였다. 다양한 법조 직역에 종사하는 졸업생들의 특강을 통해, 재학생들이 평소 접할 수 없던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왔다.

2020년 9월 3일 진행된 제1회 특강에서는 윤형석 변호사(6기, 前 국회의원 비서관, 現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국회의원 보좌진으로서의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소개와 함께 법률안의 초안 성안 및 검토에 관한 구체적인 경험을 나누었다. 2020년 9월 24일 제2회 특강에서는 김태우 변호사(4기, 네이버 사내변호사)가 방문하여 대형 로펌에서 사내변호사로 이직한 계기를 공유하고, 사내변호사의 생활, 업무수행 방식, 만족도 등을 설명하였다. 2020년 11월 5일 제3회 특강에서는 최종연 변호사(1기,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가 연사를 맡아 변호사 개업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하여 소개하고 개업변호사 시장의 현황과 노동 사건 전문 개업변호사로서의 삶에 대하여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 번에 걸친 특강 동안 총 100명 이상의 재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재학생들이 미래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 볼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

SNU Law 미래연구자포럼 발족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는 2021년 1월 20일 SNU Law 미래연구자포럼 발족식 및 제1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오영걸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SNU Law 미래연구자포럼 프로그램 및 일정 소개’를, 원유민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석사학위논문 작성에 관한 질의 답변’을, 권영준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논문작성법’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미래연구자포럼은 로스쿨생의 연구역량 강화 및 석사학위논문 작성 지원을 위해 구성되었다. 그동안 로스쿨생이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일은 드물었는데, 포럼 출범을 계기로 더 많은 로스쿨생들이 석사학위논문 작성 및 학자적 진로에 관심을 가지게 되리라 기대한다. 이번에 출범한 제1기 미래연구자포럼에는 34명의 로스쿨생들이 참여한다. 향후 연담과 멘토링, 세미나 등을 통해 참여자들의 학술적 역량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한국과 독일의 과거청산과 기억문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2020년 10월 28일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한독일대사관과 공동으로 한독학술대회 ‘한국과 독일의 과거청산과 기억문화’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Sabine Heiser 박사(Art Historian)가 ‘Topoi, loci, 축적과 단편-기억으로 읽힌 도시’, 정근식 교수(서울대 사회학과)가 ‘한국 국가폭력의 제도적 청산과 기억문화-사죄와 용서를 중심으로’, Hannes Mosler 교수(Univ. of Duisburg-Essen)가 ‘독일에서의 기억문화와 과거반성’, 박경규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5.18 40주년과 기억의 과제-올바른 진상규명과 기억을 위한 형사법 이론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한국과 독일의 예술사, 사회사,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한 이날 발표와 토론을 통해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진정한 과거청산과 참된 기억문화라는 공통된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정보기술의 발전과 상사법의 미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상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하여 2020년 12월 18일 온라인으로 공동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대회의 제1부에서는 송옥렬 교수(서울대)가 ‘인공지능과 이사회’를, 정순섭 교수(서울대)가 ‘인공지능과 금융거래-당사자의 책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지정토

론자로 박상철 교수(서울대)와 김준영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각각 참여하였다. 제2부에서는 한기정 교수(서울대)가 ‘정보기술의 발전과 보험법의 문제’를, 노혁준 교수(서울대)가 ‘증권 불공정거래의 새로운 양태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최준규 교수(서울대)와 정대익 교수(경북대)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제3부에서는 정준혁 교수(서울대)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한 법률 문제 검토’, 천경훈 교수(서울대)가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상거래와 그 법적 규율’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지정토론자로 이한진 과장(금융위원회)과 임용 교수(서울대)가 참여하였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연구 학술대회
정보기술의 발전과 상사법의 미래

일시: 2020. 12. 18(금) 14:00 ~ 18:00 | 방식: Zoom을 이용한 비대면 학술대회

모시는 글
최근 인공지능을 비롯한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기업 및 금융과 관련한 영역에서 보다 무한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과 금융에 관한 기존의 법리와 법이론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법적 연구들은 국내를 비롯하여 아직 문제제기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하여 이 공동연구에서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상사법의 미래’라는 주제로 학제적 주요 영역별로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 법리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정책으로 새로운 대안적 법규범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황광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구책임자 한기정 배상

프로그램	시간	주제	발표자
14:00 ~ 14:10	개회식	황광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14:10 ~ 14:40	제1부: 인공지능과 이사회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교수	
14:40 ~ 15:10	제2부: 인공지능과 금융거래 - 당사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교수	
15:10 ~ 15:20	휴식		
15:20 ~ 15:50	제3부: 정보기술의 발전과 보험법의 문제	박상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교수	
15:50 ~ 16:20	제4부: 기술의 발전과 증권금융거래	노혁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교수	
16:20 ~ 16:30	휴식		
16:30 ~ 17:00	제5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법률문제	정대익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교수	
17:00 ~ 17:30	제6부: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상거래와 그 법적 규율	임용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교수	
17:30 ~ 18:00	종합토론	한기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책임자	

참석신청: <https://forms.gle/9uW1TQ2dN5LmKw7> (2020. 12. 16. 24:00까지)
주최: SNU Law,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한독일대사관
주최: SNU Law,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한독일대사관
* 사전등록자에 한해 학술대회 진행 이력으로 초대권을 보내드립니다.

문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TEL: 02-880-5470 E-mail: Law@snur.ac.kr

공익산업법센터 제19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센터장 이원우 교수)는 2020년 11월 13일~14일 제주 The WE 호텔에서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 Ready? Willing? Able?’이라는 주제로 제19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제1부 한국 및 유럽에서의 논의 현황, 제2부 영미에서의 논의 현황, 제3부 종합토론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한국·독일·프랑스·영국·미국의 전문가들이 각국에서의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하였다.



공익산업법센터 제75회 학술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센터장 이원우 교수)는 2020년 11월 25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앱마켓 인앱결제 정책의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제75회 학술세

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봉의 교수(서울대)가 ‘앱마켓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홍대식 교수(서강대)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활동 제한 규제-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시스템의 경우’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이희정 교수(고려대), 최난설현 교수(연세대), 김태오 교수(창원대), 안정민 교수(한림대), 김종민 교수(국민대), 권남훈 교수(건국대), 박규태 교수(순천향대), 장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박성호 사무총장(인터넷기업협회)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공익인권법센터, 「2020년 공익인권법 전문과정」 성공적으로 마치다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양현아 교수)는 2020년 9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10일까지 「2020년 공익인권법 전문과정」을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지난 13년간 꾸준히 진행해 오던 시민강좌 「NGO와 법의 지배」(2007년~2011년), 「NGO와 법의 대화」(2012년~2013년), 그리고 「시민사회와 법의 대화」(2014년~2019년)는 2020년에 「공익인권법 전문과정」으로 재탄생되었다.

“재난, 인권, 법”을 주제로 13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과정에서는 COVID-19를 비롯하여 세월호사건 등 재난의 사회적 측면을 조명하고, 재난이 야기하는 인권문제, 차별효과, 그리고 회복을 위한 법적 방안 등 재난의 법적·인권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참가자들은 법률가, NGO 활동가, 연구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국제통상·거래법센터 제11회 모의국제상사중재경연대회

서울대학교 국제통상·거래법센터에서는 2021년 2월 20일 제11회 모의국제상사중재경연대회 (The

Willem Vis Pre-Moot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ompetition of Seoul 2021)를 개최하였다. 본 대회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모의 국제상사중재 대회로서 매년 4월 비엔나와 홍콩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국제 모의상사중재 경연대회인 Vis Moot Competition 대회와 동일한 주제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COVID-19 사태로 첫 온라인 대회로 개최되었고, 전 세계 40여 개의 팀이 참가 신청을 하여 그중 국내팀 5팀, 외국팀 3팀이 선발되어 변론대회를 진행하였다. 우승은 서울대 법전원, 준우승은 연세대 법전원이 수상하였다.



‘환경에너지법정책포럼’ 국제백신연구소 제롬 김 사무총장 특별강연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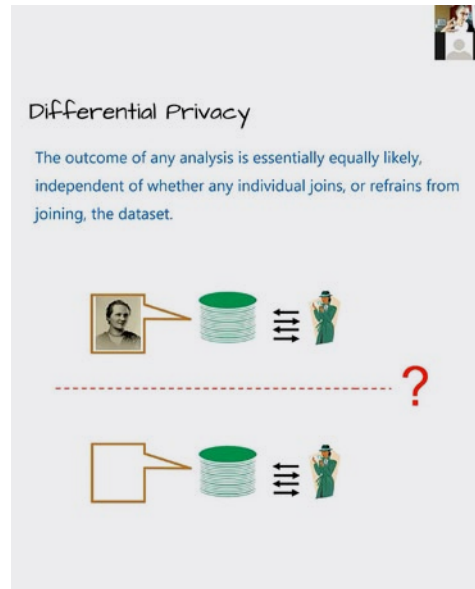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는 2020년 10월 28일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15-1동) 302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Jerome Kim, M.D. 사무총장(국제백신연구소(The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IVI))의 특별강연을 개최하였다. ‘COVID-19: Scientific and Social Challenges of World War C’라는 제목의 강연에서는 주로 백신 거부, 민족주의, 제국주의 및 지정학과 관련된 백신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강연 동영상을 접할 수 있다.



인공지능 정책 국제 컨퍼런스 “A.I.와 시장: 투명성, 공정, 혁신” 개최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는 시장을 통해 인공지능의 활용과 발전을 조망하는 Seoul AI Policy Conference를 기획하였다.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알고리즘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투명성과 공정성의 이슈를 넘어 경쟁과 혁신의 문제를 시장의 투시경으로 바라보며 인공지능 정책의 미래를 설계하여 보고자 하였다.

국내의 인공지능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행된 2020 국제 컨퍼런스에는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핵심개념 중 하나인 차등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를 창안하고 현재도 알고리즘 공정성에 대한 학계 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의 Cynthia Dwork 교수를 비롯하여 8명의 전문가가 8일에 걸쳐 인공지능 정책의 첨단을 논의하는 장을 선사하였다.



“이루다 사건으로 본 인공지능 거버넌스: AI의 일탈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특별기획 좌담회 개최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와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이루다와 관련하여 주목받은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의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규범적, 정책적 측면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토론하는 좌담회를 마련하였다. 고학수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사회를 보고 토론자로는 이준환 교수(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박상철 교수(서울대 법전원), 한애라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정교화 대표변호사(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정미나 정책실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 김경만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참여하였다.



법이론연구센터 콜로키움 개최

서울대학교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 교수)는 정기 콜로키움을 기획·개최하였다. 2020년 하반기에는 온라인 방식으로 다섯 번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2020년 9월 22일에는 제23회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김도현 연구활동가(노동장애학연구소, <장애학의 도전> 저자)가 “연립의 관점에서 본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2020년 10월 27일에 열린 제24회 콜로키움에서는 장영민 명예교수(이화여대 법전원)가 “법학과 철학 – 그 상호관계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장영민 명예교수는 ‘법이념을 수호할 법률가(혹은 법학자)의 책임’에 주목하면서 오늘날 법철학의 필요성과 사명을 논하였다.

다음으로 2020년 11월 26일에는 제25회 콜로키움을 열어, 김건우 교수(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가 “인격 vs. 법인격: 자연인에서 인공지능으로”라는 주제를 다뤘다. 김건우 교수는 ‘법적 비인간 인공 행위자’로서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를 재고할 여지를 검토하였다. 2020년 12월 3일 제26회 콜로키움에서는 장다혜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혼인 취소를 둘러싼 젠더 폭력의 중층적 구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장다혜 연구위원은 젠더 폭력의 개념을 통해, 혼인과 성폭력의 연속선 속에서 가족법상 혼인 유지의 본질적 요소와 성폭력 경험의 해석이 젠더적 관점에서 재구성될 필요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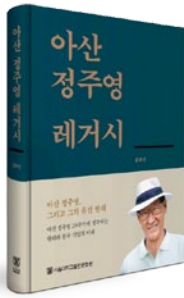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2020년 12월 8일에는 제27회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이소영 교수(제주대 사회교육과)가 “역사와 곡처벌법 입안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소영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역사 부정 규제가 담론화되는 방식과 처벌 법안 발의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를 읽어냄으로써, 그러한 법제화가 만들어내는 정치효과를 논하였다.

UNCITRAL Asia-Pacific Day 개최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성과 UNCITRAL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가 공동으로 2020년 9월 14일에 UNCITRAL Asia-Pacific Day를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학생들에게 UNCITRAL 활동의 중요성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Athita Konmindr 소장이 UNCITRAL을 소개하였고, 남은영 법률전문위원이 UNCITRAL 관련 법제 소개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설명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민 교수가 UNCITRAL Working Group 활동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학생들이 인턴십 및 UNCITRAL 업무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의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UNCITRAL Day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신 간 소개



아산 정주영 레거시
김화진 교수

기업인이지만 사회적, 국가적 의미를 부여할 만한 거인들이 세계사에 가끔 있다. 아산이 그에 해당한다. 아산은 기업인이었지만 굴곡의 한국 현대사를 나뉠 책임감으로 기꺼이 짊어졌고 매우 정직하게 앞으로 끌고 나갔던 인물이다. 저자는 아산의 생애와 업적도 조명하지만, 아산이 일군 사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더 초점을 맞춘다. 아산의 유산인 현대와 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 책은 글로벌 기업들의 소유 지배구조를 연구하는 저자의 관점이 반영된 새로운 기업 읽기라 할 수 있다. 회고록 외에 학술적 평전이 없었던 아산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최초의 무게 있는 학술적 조명이라는 점에서 이 책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21



신탁법
오명걸 교수

이 책은 신탁법의 기본원리와 규율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신탁 관련 규율도 함께 다루고 있다. 그동안 투자펀드나 토지개발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어오다, 최근에는 가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족 신탁과 고령자나 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복지 신탁으로 영토를 넓히고 있는 신탁제도는 재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이 책은 신탁제도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재, 특히 주목할만한 책이다.

홍문사 | 2021

릴레이 도서 추천

릴레이 도서 추천은 법대 구성원들이 고민하면서, 때로는 휴식하면서 읽을만한 책을 여러 교수들이 차례로 추천하는 특집입니다.

이계정 교수



칼의 노래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인 김훈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책은 김훈 작가가 중시하는 사실주의 정수를 보여주는 동시에 김훈 작가의 아름다운 문장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이 갖는 의의 중 첫째는, 이 작품을 통해 법률가가 배워야 할 간명하고 아름다운 문장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전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한 후에 그 기반 위에서 의견을 펼치는 것은 특히 법조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김훈 | 생각의 나무 | 2001



오래된 미래

이 책의 저자는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라다크인들의 삶을 통해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이미 과거에 존재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계량화된 가치만을 중시하는 서구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자연을 존중하고, 인간을 서로 귀하게 여기는 동양적 사고를 통해 현대사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 녹색평론사 | 1996



연을 쫓는 아이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기구한 역사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또는 이슬람 문화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깰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종교나 선험적 지식에 의해 사물을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객관성은 법조인에게 특히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를 다룬 소설을 통해 타문화를 바라보는 보다 객관적인 시선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레드 호세이니 | 열림원 | 2005



러일전쟁 1, 2 : 기원과 개전

이 책은 일본인이 서술한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에 관한 역사서입니다. 작가가 일본인이기는 하나 단순히 일본인의 시선에서 서술한 것이 아니라, 매우 많은 양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당시의 역사를 재구성하였기에, 상당히 객관적인 역사서라 할 수 있습니다.

와다 하루키 | 한길사 | 2019

좋은 법률가가 또는 훌륭한 법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설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법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기에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설을 통해 수많은 인간군상을 간접 체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 법을 공부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한 위 책들을 통해 우리 학교 법전원생들이 스스로에 안주하지 않고 공익과 국익의 중요성을 가슴 속에 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SNU Law 人 캠페인 안내

SNU Law 人 캠페인은 매월 1만원(1구좌)으로 서울법대를 후원하는 정기후원 캠페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서울법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SNU Law 人 기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사회공헌기금 — 공적마인드를 갖춘 법률가 및 사회적 리더의 자격을 갖춘 서울법대 人을 양성

교육장학기금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서울법대 人을 양성

학술연구 — 미래지향적인 법학 연구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자로서 서울법대 人을 양성

일반기금 — 서울법대 교육 및 인프라 구축

• SNU Law 人에게 드리는 혜택

1. 세제 혜택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2. 네이밍 예우

서울법대 홈페이지, 정의의 종 등에 기부자 명단 게재

3. SNU Law Family 머그컵 증정

1구좌(1만원) 이상의 정기후원을 약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SNU Law Family 머그컵 증정

• SNU Law 人 캠페인 참여방법

1. 온라인 기부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참여가 가능합니다.

<http://secure.donus.org/snulaw>

(신용카드, 계좌이체, CMS 신청가능)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온라인 기부페이지로 연결 됩니다.

2. 전화·이메일

전화 및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로 연락주시면 참여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전화. 02.880.2448

이메일. lawgiving@snu.ac.kr

카카오톡. snulawfund

Next Decade 기금 (발전 기금) 안내

서울법대의 미래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약정 문의

• 전화·이메일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출연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 방문

방문해 주시면 출연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전화 02.880.2448

팩스 02.889.7196

이메일 lawgiving@snu.ac.kr

주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210호

세제 혜택

• 개인기부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 공제)

• 법인기부자

당해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세제혜택 비교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기부 시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지정기부금에 비해 더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구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내용	사립학교, 국가지방단체,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등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단체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100%	소득금액의 50%	소득금액의 30%	소득금액의 10%
해당기관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여타 기관	

법 학 발 전 재 단 및 발 전 기 금 출 연 현 황

2020. 9. 1 — 2021. 2. 28

SBS문화재단	306,000,000	2020.09.01	이윤진	10,000	2020.11.06	김연각	10,000	2020.12.14
이의영	30,000	2020.09.14	김다연	30,000	2020.11.06	구현정	10,000	2020.12.14
강민구	50,000	2020.09.22	이종화	50,000	2020.11.06	홍성혜	10,000	2020.12.14
이경준	100,000	2020.09.22	유석호	50,000	2020.11.06	전성훈	10,000	2020.12.14
법무법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	50,000,000	2020.09.23	이현선	50,000	2020.11.06	김휘재	10,000	2020.12.14
차영선	20,000	2020.09.25	신혜주	50,000	2020.11.06	신동일	70,000	2020.12.14
유홍수	100,000	2020.09.25	오태욱	100,000	2020.11.06	법무법인 태평양	100,000,000	2020.12.15
전일호	10,000	2020.09.28	박진호	200,000	2020.11.06	이종준	10,000	2020.12.16
육지희	10,000	2020.09.28	학봉장학회	50,000,000	2020.11.10	임규선	35,000	2020.12.16
최지석	10,000	2020.09.28	이의영	30,000	2020.11.11	김종윤	35,000	2020.12.16
홍석재	50,000	2020.09.28	구현정	10,000	2020.11.12	남연진	35,000	2020.12.16
정병기	10,000	2020.10.06	홍성혜	10,000	2020.11.12	김준영	35,000	2020.12.16
김지수	10,000	2020.10.06	전성훈	10,000	2020.11.12	이현선	35,000	2020.12.16
박은정	10,000	2020.10.06	김휘재	10,000	2020.11.12	박승환	35,000	2020.12.16
박상록	10,000	2020.10.06	신동일	70,000	2020.11.12	하정민	35,000	2020.12.16
이윤진	10,000	2020.10.06	석소현	10,000	2020.11.17	안지혜	35,000	2020.12.16
김다연	30,000	2020.10.06	후원자00764	5,000,000	2020.11.17	이수안	35,000	2020.12.16
유석호	50,000	2020.10.06	박소현	10,000	2020.11.23	문태원	35,000	2020.12.16
이종화	50,000	2020.10.06	강민구	50,000	2020.11.23	김재희	35,000	2020.12.16
이현선	50,000	2020.10.06	이경준	100,000	2020.11.23	양지애	35,000	2020.12.16
방운섭	100,000	2020.10.06	차영선	20,000	2020.11.25	이유미	35,000	2020.12.16
오태욱	100,000	2020.10.06	유홍수	100,000	2020.11.25	홍영기	35,000	2020.12.16
박진호	200,000	2020.10.06	육지희	10,000	2020.11.26	정하은	35,000	2020.12.16
ALP 30기	30,000,000	2020.10.12	전일호	10,000	2020.11.26	장연수	35,000	2020.12.16
구현정	10,000	2020.10.13	최지석	10,000	2020.11.26	신승환	70,000	2020.12.16
홍성혜	10,000	2020.10.13	홍석재	50,000	2020.11.26	김연진(김지수)	70,000	2020.12.16
전성훈	10,000	2020.10.13	김연각	10,000	2020.11.27	지용환	70,000	2020.12.16
김휘재	10,000	2020.10.13	정병기	10,000	2020.11.30	나인성	70,000	2020.12.16
이의영	30,000	2020.10.13	방운섭	100,000	2020.11.30	김현정	70,000	2020.12.16
신혜주	50,000	2020.10.13	Eyagi(이야기)CAFE	22,500,000	2020.12.03	방민주	140,000	2020.12.16
강민구	50,000	2020.10.21	윤아현	10,000	2020.12.08	장호준	35,000	2020.12.17
신동일	70,000	2020.10.22	박소현	10,000	2020.12.08	황기현	35,000	2020.12.17
차영선	20,000	2020.10.26	석소현	10,000	2020.12.08	이상혁	105,000	2020.12.17
이경준	100,000	2020.10.26	이창규	10,000	2020.12.08	최경준	300,000,000	2020.12.17
육지희	10,000	2020.10.27	김지수	10,000	2020.12.08	임수연	35,000	2020.12.18
전일호	10,000	2020.10.27	박은정	10,000	2020.12.08	서의영	35,000	2020.12.18
최지석	10,000	2020.10.27	박상록	10,000	2020.12.08	법무법인 화우	200,000,000	2020.12.18
유홍수	100,000	2020.10.27	이윤진	10,000	2020.12.08	김영주	2,000,000	2020.12.21
정병기	10,000	2020.10.28	김다연	30,000	2020.12.08	강민구	50,000	2020.12.22
홍석재	50,000	2020.10.28	이종화	50,000	2020.12.08	이경준	100,000	2020.12.22
방운섭	100,000	2020.10.28	유석호	50,000	2020.12.08	이수용	35,000	2020.12.23
이창규	10,000	2020.11.02	이현선	50,000	2020.12.08	김준호	35,000	2020.12.23
이진만	3,000,000	2020.11.03	오태욱	100,000	2020.12.08	송화	35,000	2020.12.23
이창규	10,000	2020.11.06	박진호	200,000	2020.12.08	이윤진	35,000	2020.12.23
김지수	10,000	2020.11.06	박정난	1,000,000	2020.12.09	최제환	35,000	2020.12.23
박은정	10,000	2020.11.06	이의영	30,000	2020.12.11	유정민	35,000	2020.12.23
박상록	10,000	2020.11.06	신혜주	50,000	2020.12.11	김보미	35,000	2020.12.23

이현경	35,000	2020.12.23	지승민	35,000	2020.12.28	육지희	10,000	2020.12.29
임상일	35,000	2020.12.23	이준구	35,000	2020.12.28	황재원	35,000	2020.12.29
장세정	35,000	2020.12.23	강윤구	35,000	2020.12.28	김상오	35,000	2020.12.29
문예원	35,000	2020.12.23	전우석	35,000	2020.12.28	김상오	35,000	2020.12.29
김진건	35,000	2020.12.23	이석원	35,000	2020.12.28	김상오	35,000	2020.12.29
서용희	35,000	2020.12.23	신진경	35,000	2020.12.28	황재희	35,000	2020.12.29
김재원	35,000	2020.12.23	이찬희	35,000	2020.12.28	이효준	35,000	2020.12.29
박하얀	35,000	2020.12.23	홍규민	35,000	2020.12.28	강혜림	35,000	2020.12.29
조용경	35,000	2020.12.23	정재원	35,000	2020.12.28	박지혜	35,000	2020.12.29
강준모	35,000	2020.12.23	권준희	35,000	2020.12.28	홍석재	50,000	2020.12.29
박상일	35,000	2020.12.23	장진한	35,000	2020.12.28	김재완	105,000	2020.12.29
김성진	35,000	2020.12.23	김동재	35,000	2020.12.28	송복은 장학재단	6,000,000	2020.12.29
김효성	35,000	2020.12.23	오세원	35,000	2020.12.28	김미영	35,000	2020.12.30
이정은	35,000	2020.12.23	김진훈	35,000	2020.12.28	이한	35,000	2020.12.30
이규철	35,000	2020.12.23	정승기	35,000	2020.12.28	이재빈	35,000	2020.12.30
나인경	35,000	2020.12.23	윤동영	35,000	2020.12.28	김상빈	35,000	2020.12.30
최종연	50,000	2020.12.23	고기승	35,000	2020.12.28	방윤섭	100,000	2020.12.30
정다연	70,000	2020.12.23	진형원	35,000	2020.12.28	석광현	7,540,000	2020.12.30
강제인	70,000	2020.12.23	김광현	35,000	2020.12.28	법무법인 화우	200,000,000	2020.12.30
윤형은	70,000	2020.12.23	고윤아	35,000	2020.12.28	정병기	10,000	2020.12.31
김소연	70,000	2020.12.23	김말금	35,000	2020.12.28	정지혜	70,000	2020.12.31
임해성	35,000	2020.12.24	김민형	35,000	2020.12.28	박준범	35,000	2021.01.01
차영선	20,000	2020.12.28	이은총	35,000	2020.12.28	임용	350,000	2021.01.04
진민영	35,000	2020.12.28	박일현	35,000	2020.12.28	이종준	10,000	2021.01.06
박예은	35,000	2020.12.28	장윤정	35,000	2020.12.28	윤아현	10,000	2021.01.06
윤태현	35,000	2020.12.28	양연실	35,000	2020.12.28	박소현	10,000	2021.01.06
백대열	35,000	2020.12.28	이운웅	35,000	2020.12.28	석소현	10,000	2021.01.06
김찬	35,000	2020.12.28	범유경	50,000	2020.12.28	이창규	10,000	2021.01.06
황정호	35,000	2020.12.28	노청수	70,000	2020.12.28	김지수	10,000	2021.01.06
박지향	35,000	2020.12.28	함주혜	70,000	2020.12.28	박은정	10,000	2021.01.06
강태승	35,000	2020.12.28	임동규	70,000	2020.12.28	박상록	10,000	2021.01.06
공다훈	35,000	2020.12.28	김찬호	70,000	2020.12.28	이윤진	10,000	2021.01.06
정세연	35,000	2020.12.28	박성윤	70,000	2020.12.28	김다연	30,000	2021.01.06
김정현	35,000	2020.12.28	김동연	70,000	2020.12.28	오유빈	35,000	2021.01.06
류이레	35,000	2020.12.28	강예은	70,000	2020.12.28	김윤민	35,000	2021.01.06
호성식	35,000	2020.12.28	강세원	70,000	2020.12.28	이종화	50,000	2021.01.06
권소담	35,000	2020.12.28	왕윤	70,000	2020.12.28	유석호	50,000	2021.01.06
한경원	35,000	2020.12.28	이소은	70,000	2020.12.28	이현선	50,000	2021.01.06
김서경	35,000	2020.12.28	문민영	70,000	2020.12.28	신혜주	50,000	2021.01.06
김강희	35,000	2020.12.28	유흥수	100,000	2020.12.28	전혜연	70,000	2021.01.06
신익재	35,000	2020.12.28	배현지	100,000	2020.12.28	오태욱	100,000	2021.01.06
오수비	35,000	2020.12.28	전두영	100,000	2020.12.28	김효정	140,000	2021.01.06
박성연	35,000	2020.12.28	김은영	105,000	2020.12.28	박진호	200,000	2021.01.06
조성혁	35,000	2020.12.28	구재훈	105,000	2020.12.28	법인법인 광장	100,000,000	2021.01.06
경윤주	35,000	2020.12.28	김수정	105,000	2020.12.28	김환수	100,000,000	2021.01.07
김민영	35,000	2020.12.28	하정엽	105,000	2020.12.28	전은주	35,000	2021.01.08
곽경민	35,000	2020.12.28	이재성	105,000	2020.12.28	이주락	50,000	2021.01.11
임동민	35,000	2020.12.28	원대성	105,000	2020.12.28	김연각	10,000	2021.01.12
김후신	35,000	2020.12.28	김석원	105,000	2020.12.28	구현정	10,000	2021.01.12
성아윤	35,000	2020.12.28	김효정	140,000	2020.12.28	홍성혜	10,000	2021.01.12
김정현	35,000	2020.12.28	김태완	140,000	2020.12.28	전성훈	10,000	2021.01.12
정송현	35,000	2020.12.28	이충윤	140,000	2020.12.28	김휘재	10,000	2021.01.12
이한재	35,000	2020.12.28	배성우	210,000	2020.12.28	이의영	30,000	2021.01.12
류상우	35,000	2020.12.28	전일호	10,000	2020.12.29	신동일	70,000	2021.01.12
남현우	35,000	2020.12.28	최지석	10,000	2020.12.29	이필복	1,000,000	2021.01.15

강민구	50,000	2021.01.21	이종준	10,000	2021.02.08	오태욱	100,000	2021.02.08
이경준	100,000	2021.01.21	윤아현	10,000	2021.02.08	박진호	200,000	2021.02.08
최준규	10,000,000	2021.01.21	박소현	10,000	2021.02.08	이완국	30,000,000	2021.02.09
범무법인 올촌	200,000,000	2021.01.22	석소현	10,000	2021.02.08	김연각	10,000	2021.02.16
차영선	20,000	2021.01.25	이창규	10,000	2021.02.08	구현정	10,000	2021.02.16
유홍수	100,000	2021.01.25	김지수	10,000	2021.02.08	홍성혜	10,000	2021.02.16
재단법인 나은	200,000,000	2021.01.25	박은정	10,000	2021.02.08	전성훈	10,000	2021.02.16
전일호	10,000	2021.01.26	박상록	10,000	2021.02.08	김휘재	10,000	2021.02.16
최지석	10,000	2021.01.26	이윤진	10,000	2021.02.08	신동일	70,000	2021.02.16
육지희	10,000	2021.01.26	김다연	30,000	2021.02.08	강민구	50,000	2021.02.23
홍석재	50,000	2021.01.26	이종화	50,000	2021.02.08	이경준	100,000	2021.02.23
정병기	10,000	2021.02.01	유석호	50,000	2021.02.08	한화(주)	15,000,000	2021.02.24
이의영	30,000	2021.02.01	이현선	50,000	2021.02.08	삼성탈레스	15,000,000	2021.02.25
방운섭	100,000	2021.02.01	신혜주	50,000	2021.02.08			

예 우 안 내

기부금액에 따라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서 제공하는 예우 프로그램과 서울법대의 특별 예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50억 원	10억 원	5억 원	1억 원	5천만 원	1천만 원	1백만 원
기념품 및 간행물	총장 명의 감사패, 원장 명의 감사패	•	•	•	•	•	•	감사장
	기념품(본부, 법대), 간행물(본부, 법대), 달력, 생일카드	•	•	•	•	•	•	•
관악 명예 동문 특별초청	입학식, 개교기념식	•	•	-	-	-	-	-
	총장실 초청 약정식 및 감사패	•	•	•	•	-	-	-
	캠퍼스투어, 장학금 수여식	•	•	•	•	-	-	-
	기부자 초청 음악회, 전시회	•	•	•	•	•	•	-
	법대 행사 초청	•	•	•	-	-	-	-
	홍상	•	-	-	-	-	-	-
	부조	•	•	-	-	-	-	-
	기부자 리포트(본부, 법대)	•	•	•	•	•	-	-
	법대 명예의 전당(17동 1층) 명패 보존, 행정관 명예의 전당, 연구공원 명예의 전당(1억원 이상)	•	•	•	•	•	•	-
	교내 주요 행사 초청	•	•	•	•	•	-	-
	총장 공관 만찬 초청	•	-	-	-	-	-	-
	관악캠퍼스 무료주차	•	•	•	•	-	-	-
학교시설 이용편의	미술관, 박물관, 규장각 관람	•	•	•	•	•	•	-
	호암교수회관 및 서울대 기념품 할인	•	•	•	•	•	•	-
	중앙도서관 본관 이용	•	•	•	•	•	•	•
	평생교육원 수강료 할인	•	•	•	•	•	•	기한
	법학도서관 이용	•	•	•	•	•	•	•
	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입학추천권	•	•	•	•	•	-	-
	건강검진 우선 및 진료예약	평생	평생	기한	기한	-	-	-
	의전서비스	평생	10년	기한	기한	-	-	-
서울대병원 이용편의	근조기	•	•	•	•	•	•	-

SNU Law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02-880-7530
Fax. 02-889-7196

<http://law.snu.ac.kr>